

#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8. 3

담당부서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641
------	---------	-------	---------------------	------	------------------------

제 목: 2011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7월 CBSI 계절적 요인 영향 전월비 3.0p 하락한 71.1 기록

- 중소기업체 지수 9.2p 하락해 CBSI하락 주도  
CBSI 올 들어 65~75사이 침체국면속 횡보세 지속 -

- 2011년 7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0p 하락한 71.1을 기록함.
- 지난 3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3월 0.9p, 4월 4.8p 상승)했던 CBSI는 5월에 7.5p 하락한 이후, 전월인 6월에는 7.8p 상승했으며, 7월 들어 다시 3.0p 하락하여 올 들어 3, 4월을 제외하고는 한달 간격으로 등락을 반복함.
- 이로써 CBSI는 올 들어 7월까지 65~75사이에서 등락을 계속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임.
- CBSI가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친 70선 주위에서 횡보세를 지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7월 CBSI 하락은 건설경기 침체수준을 개선할 특별한 긍정적 요인이 없었던 가운데, 통상 건설공사 비수기인 혹서기로 접어든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판단됨.
- 8월 CBSI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7.0p 하락한 64.1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7.0p 하락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8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7월보다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8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8월 CBSI는 7월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매우 소폭 상승한 반면, 중견, 중소기업 지수는 모두 전월비 하락함. 특히 중소기업 지수가 전월비 9.2p 하락해 7월 CCSI 하락을 주도함.
  - 지난 6월에 전월비 6.4p 상승해 83.3을 기록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7월에는 전월비 1.3p 상승한 84.6을 기록해 전월과 비슷한 경기침체 수준을 보임.
  - 일부 중견업체의 유동성 위기 직면 영향으로 지난 4월 지수가 전월비 18.6p 급락했던 중견업체 지수는 5월, 6월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8.3p, 7.2p 상승)했으나, 7월에는 2개월 동안 15.5p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비 1.9p 하락한 72.0을 기록함.
  - 1/4분기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공공공사 발주가 2/4분기 이후 차츰 회복됨에 따라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지수는 4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해 6월에 63.6을 기록하며 작년 4월(67.9) 이후 1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7월에는 3개월 연속 지수상승(30.9p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비 9.2p 하락한 54.4를 기록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조달 및 자재비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6.5, 98.4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6.7, 64.6을 기록해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90.1, 88.7을 기록해 자금조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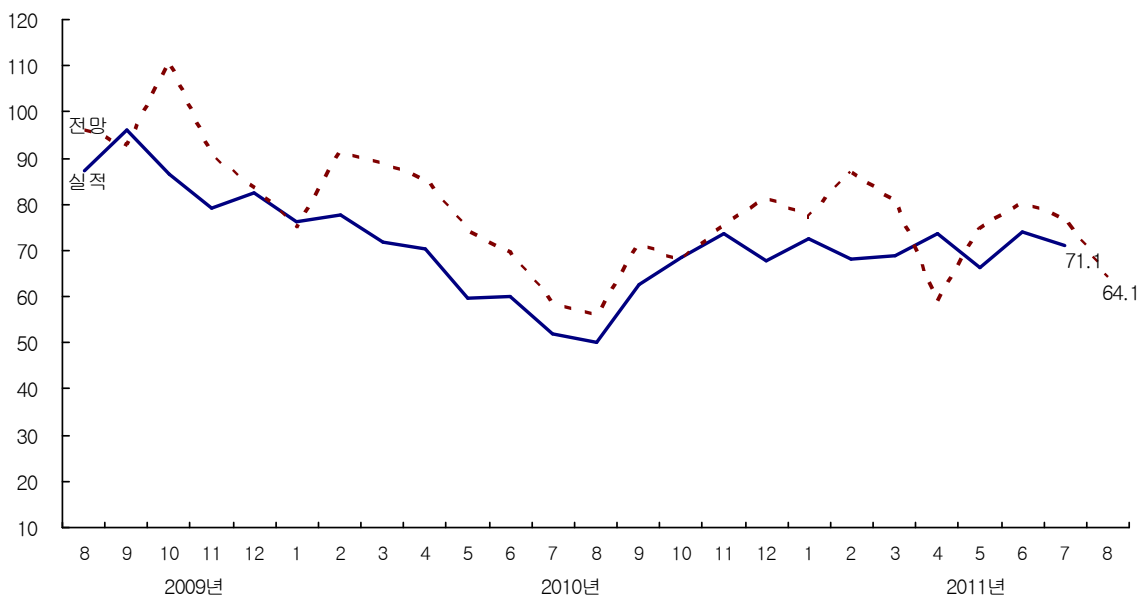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http://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11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7월 CBSI 전월비 3.0p 하락한 71.1 기록

- 2011년 7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0p 하락한 71.1을 기록함.
- 지난 3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3월 0.9p, 4월 4.8p 상승)했던 CBSI는 5월에 7.5p 하락한 이후, 전월인 6월에 7.8p 상승했으며, 7월 들어 다시 3.0p 하락하여 올 들어 3,4월을 제외하고는 한달 간격으로 등락을 반복함.
- 이로써 CBSI는 올 들어 7월까지 65~75사이에서 등락을 계속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임.
- CBSI가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친 70선 주위에서 횡보세를 지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한편, 7월 CBSI 하락은 건설경기 침체수준을 개선할 특별한 긍정적 요인이 없었던 가운데, 통상 건설공사 비수기인 혹서기로 접어드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매우 소폭 상승한 반면, 중견, 중소기업 지수는 모두 전월비 하락함. 특히 중소기업 지수가 전월비 9.2p 하락해 7월 CBSI 하락을 주도함.
  - － 지난 6월에 전월비 6.4p 상승해 83.3을 기록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7월에는 전월비 1.3p 상승한 84.6을 기록해 전월과 비슷한 경기침체 수준을 보임.
  - － 일부 중견업체의 유동성 위기 직면 영향으로 지난 4월 지수가 전월비 18.6p 급락했던 중견업체 지수는 5월, 6월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8.3p, 7.2p 상승)했으나, 7월에는 2개월 동안 15.5p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비 1.9p 하락한 72.0을 기록함.
  - － 1/4분기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공공공사 발주가 2/4분기 이후 차츰 회복됨에 따라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지수는 4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해 6월에 63.6을 기록하며 작년 4월(67.9) 이후 1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7월에는 3개월 연속 지수상승(30.9p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비 9.2p 하락한 54.4를 기록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0년 9월	10월	11월	12월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2.6	68.5	73.7	67.9	72.4	68.1	69.0	73.8	66.3	74.1	71.1	76.8	64.1
규모별	대형	71.4	91.7	91.7	76.9	92.9	78.6	92.3	107.7	76.9	83.3	84.6	100.0	76.9
	중견	69.2	69.2	80.8	70.4	79.2	73.1	76.9	58.3	66.7	73.9	72.0	77.3	66.7
	중소	44.8	40.4	44.6	54.4	40.7	50.0	32.7	51.8	53.6	63.6	54.4	49.1	46.3
지역별	서울	69.6	84.4	91.2	75.3	90.5	79.1	82.0	87.9	68.6	77.4	80.2	91.9	71.4
	지방	51.7	45.1	46.6	56.7	46.2	51.2	49.7	53.3	62.9	71.2	57.2	56.8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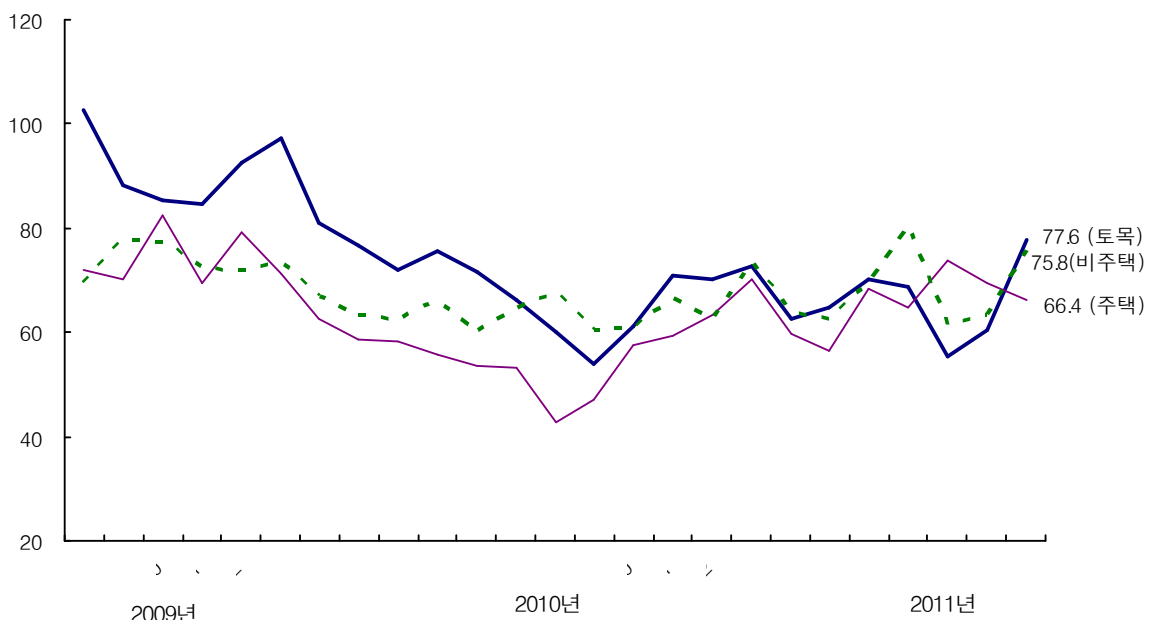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8월 CBSI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7.0p 하락한 64.1을 기록함.
  -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7.0p 하락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8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7월보다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 통상 8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8월 CBSI는 7월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는 7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8p 증가한 80.2를 기록한 반면,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14.0p 감소한 57.2를 기록함.
  -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2.8p 증가한 80.2를 기록,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지난 4월(87.9)이후 3개월만에 80선을 회복함.
  - － 한편, 지방업체 지수는 지난 6월 71.2로 18개월 간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으나, 7월에는 70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전월보다 14.0p나 급락한 57.2에 그침.
  - － 지난 5월과 6월 지방의 주택물량이 소폭 회복된 듯 보였으나, 비수기를 맞아 주택물량이 다시 감소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 7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보다 4.1p 증가한 73.9기록

- 7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4.1p 증가한 73.9를 기록함. 비록 지수가 전월보단 증가했지만, 여전히 70선에 불과해 부진한 상황임.
  - 공사 물량지수는 6월에는 69.8을 기록한 이후 7월에는 이보다 4.1p 증가한 73.9를 기록함. 지난 2010년 9월 63.8을 기록한 이후 대략 두달 간격으로 지수가 60과 70선을 반복하는 양상을 지속함.
  - 이는 연말 물량 증가효과와 봄철 물량 회복효과가 미미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침체된 건설물량 상황이 뚜렷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지연되어왔던 정부 토목공사 발주가 일부 재개되고, 세종 및 혁신도시 공사발주로 인하여 토목과 비주택 물량이 7월 들어 소폭 개선되었으나, 주택물량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는 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감소(-2.9p)해 두달 연속 위축된 양상을 보였으나, 토목물량지수가 전월 보다 17.1p 상승하였으며, 비주택 물량 또한 전월보다 12.6p 상승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지난 5월 55.4로 매우 부진하였으나, 6월에 5.1p 상승한 60.5로 60선을 회복한 이후, 7월 들어 또다시 지수가 17.1p 증가해 올 들어 가장 높은 77.6을 기록함.
  - 작년 말부터 지연되었던 공공토목공사 발주물량이 6월과 7월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연초 계획했던 것보다 부진한 상반기 발주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물량이 일부 소화된 것으로 여겨짐.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5월 분양물량의 증가로 전월 대비 9.3p 증가한 74.0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여름철 분양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6월과 7월 각각 전월 대비 4.7p, 2.9p 감소, 7월 지수는 66.4로 지난 4월(64.7)과 비슷한 수준에 머뭄.
  - 한편 비주택 물량지수는 사무실 빌딩과 공장 등 민간 부문의 신규공사가 다소 주춤한데 따른 영향으로 지난 5월과 6월에는 각각 61.6과 63.2로 60선 초반에 불과하였음. 그러나, 7월에는 전월보다 12.6p 증가한 75.8을 기록해 지수가 3개월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 비주거용 건축수주 중 공공부문의 수주가 세종시 제2청사 등의 영향으로 지난 4~5월에 급격히 증가한 것을 감안, 7월 비주택 물량지수 회복은 민간보단 공공부문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과 중견업체가 각각 전월대비 0.6p, 12.0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체는 전월보다 1.0p 감소함. 결국, 중견업체가 전체 물량지수 상승을 주도하였음.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0.6p 증가한 92.3을 기록함.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17.3p, 10.6p 증가한 92.3, 83.3을 기록함. 반면, 주택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6.4p 감소한 76.9에 그쳤음.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지난 6월보다 12.0p 증가한 72.0을 기록함. 공종별로는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33.3p, 25.5p 증가한 87.5, 88.0을 기록함. 반면, 주택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8.4p 감소한 70.8에 그침.
  - 한편,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0p 감소 54.4를 기록함. 공종별로 모든 물량이 40~50선에 불과해 물량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3.9	92.3	72.0	54.4	82.4	60.7
	전망	71.2	84.6	79.2	46.3	77.2	63.6
토목	실적	77.6	92.3	87.5	49.1	88.1	61.5
	전망	77.1	84.6	95.7	47.3	85.8	65.7
주택	실적	66.4	76.9	70.8	48.9	72.0	57.4
	전망	62.3	76.9	63.6	43.8	67.8	56.0
비주택	실적	75.8	83.3	88.0	52.9	85.3	61.0
	전망	71.1	84.6	87.0	37.3	83.3	52.3

주 : 실적은 2011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8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7.9p 증가한 82.4를 기록하였음.  
반면, 지방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4.4p 감소한 60.7에 그침.
  - － 7월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82.4로 지난 4월(85.6)이후 3개월만에 다시 80선을 회복함. 공종별로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각각 33.3p, 25.5p 증가해 각각 88.1과 85.3을 기록함. 반면, 주택 물량 지수는 전월대비 1.1p 감소한 72.0을 기록함.
  - － 한편,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60.7을 기록 3개월 연속 60선에 머물. 공종별로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8.8p, 4.8p 감소한 57.4, 61.0을 기록하였음. 다만,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4.0p 증가한 61.5를 기록함.
- 2011년 8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여름철 비수기인 계절적인 요인으로 7월보다 2.7p 감소한 7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 토목 물량지수는 7월 실적치보다 0.5p 감소한 77.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 비주택 물량지수는 7월보다 4.7p 감소한 71.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 한편, 주택 물량지수는 7월보다 4.1p 감소한 62.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타공종에 비해 가장 부진할 것으로 예상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조달 및 자재비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조달 및 자재비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6.5, 98.4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6.7, 64.6을 기록해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90.1, 88.7을 기록해 자금조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90.1	107.7	88.0	71.9	95.9	81.2
		전망	90.9	107.7	87.5	75.0	96.4	82.2
	자금조달	실적	88.7	107.7	84.0	71.9	93.7	81.2
		전망	88.9	107.7	83.3	73.2	93.1	82.2
인력	수급	실적	96.5	100.0	104.0	83.9	100.0	92.7
		전망	96.3	92.3	108.3	87.3	97.9	95.3
	인건비	실적	86.7	92.3	100.0	64.9	96.0	72.3
		전망	83.8	92.3	95.8	60.0	93.8	68.5
자재	수급	실적	98.4	108.3	104.0	80.4	104.9	90.0
		전망	99.8	107.7	104.2	85.5	106.9	90.4
	비용	실적	64.6	76.9	68.0	46.4	70.3	56.0
		전망	71.3	92.3	70.8	47.3	85.7	49.6

주 : 실적은 2011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8월 예측지수임.